

정식의 <竺山別曲>과 그 문학사적 의미

조태성*

<차 례>

1. 머리말
2. 정식과 <축산별곡>, 그리고 관유가사의 전통
3. <축산별곡>의 노정과 내용
4. <축산별곡>의 문학사적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축산별곡(竺山別曲)>은 조선 시대 후기의 문인이었던 정식이 1728년 용궁 현감으로 재직할 때 지은 가사 작품이다. 본고는 문학사적 측면에서의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이 작품이 갖는 의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조가사』에 실린 정식의 행장과 관련 발문들, 그리고 <축산별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것이 갖는 문화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관유가사의 지역적 확대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축산별곡>이 제작되기 이전의 관유가사에서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은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전라도 등이었다. 즉, 관서, 관동, 관북, 호남이 모두 포괄되어 있으나, 유독 충청과 영남지역만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적 결손을 정식의 <축산별곡>이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이 관유가사의 지역적 전통을 영남에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전기 기행가사에서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 과정에서의 역할이다. 이는 권섭이 노래한 <연삼별곡>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도 할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HK) 연구교수

수 있다. 즉 <축산별곡>이 기행가사의 형식적 특징, 특히 <영삼별곡>의 문학사적 특징을 규정하는 ‘탐문’보다는 오히려 내용적 측면에서 전대의 가사를 충실히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축산별곡>은 <영삼별곡>과 더불어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를 완성시키는 과도기적 작품으로서의 문학사적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핵심어 : 정식, 축산별곡, 기행가사, 관유가사, 영삼별곡

1. 머리말

<축산별곡(竺山別曲)>은 조선 시대 후기의 문인이었던 정식(鄭湜, 현종 2:1661 ~ 영조 7:1731)이 1728년 용궁현감으로 재직할 때 지은 가사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의 증손인 정익환(鄭翼煥)이 1782년에 엮은 『선조가사(先祖歌詞)』에 송강 정철의 가사 작품들과 함께 실려 있다. 제목에 보이는 ‘축산’은 현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의 신라시대 지명이다. 고려시대에는 용주라 하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용궁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목민관으로서의 다짐과 더불어 축산 지방의 산천 풍물과 이를 대하는 작자의 소회를 담고 있다. 3·4조 위주의 음수율에 전체 56행 총 112구로 되어 있다.

본고는 영호남의 문화 교류사적 측면, 좀더 폭넓게 보자면 문학사적 측면에서 정식의 <축산별곡>이 갖는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조가사』에 실린 정식의 행장과 작품 관련 발문들, 그리고 <축산별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것이 갖는 문화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식의 <축산별곡>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성립하리라 보기 때문이다.¹⁾

이러한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지어진 정식의 가사가 이곳 사람들의 문학 활동에 어떤 점에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곳에서 지어진 어떤 작품에서 정식이 문학적 영향 받았을 가능성, 또는 그 영향 받은 바가 그의 작품인 <축산별곡>에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펴보는 차후의 탐색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정식과 <축산별곡>, 그리고 관유가사의 전통

<축산별곡>의 작자인 정식에 대해서는 그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선조가사』에 실린 <용궁공행장>에 간략한 행적과 일화 정도만 알려졌을 뿐이다. 축산을 노래한 그의 휘는 식(湜)이요, 자는 계심(季深)이며, 경상도 영일인이다. 그의 5대조가 송강 정철이라는 사실은 그의 노래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는 1661년(현종 2) 5월 19일, 현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지곡리에서 아버지 광연(光演)과 숙부인 순창 조씨 사이에서 5남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효행이 매우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지의 거흐시매 힝실 가지오시미 효도와 우이돈목호오시미 지극호시고 일즉 친환이겨오서 위급호오매 단디호오시니 그째 공의 나히 십여세라”²⁾ 라는 「용궁공행장」의 구절은 그가 열 살 때 아버지에게 병이 생겼는데,

- 1) 필자가 과묵한 탓이었지만, 진동혁이 『선조가사』를 입수하여 거기에 실린 이 작품에 대해 간략한 해제(「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를 내놓은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 탐색이 이루어진 경우를 아직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탐색을 통한 객관적 시각 확보가 어려웠던 까닭에 본고의 논의가 간혹 자의적일 수밖에 없음을 미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직 『선조가사』 원문을 찾을 수도 없어 원문 해석상의 몇 가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음을 자인하는 바이다.
- 2) 「용궁공행장」, 『선조가사』. 이하 인용하는 행장의 내용은 진동혁의 연구에 의한다. 본문 중 짧은 인용의 경우 ‘용궁공행장’ 원문을 이용하고, 긴 인용의 경우 논의 전개 편의상 진동혁의 해석본을 재이용함을 밝힌다.

약을 대신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구완했던 일로써 세간의 칭송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그의 학문과 관련하여 기록된 행장의 내용과 일화이다.

공이 총명이 卓越하셔서 경전을 많이 읽으심에 날로 부지런히 하셔서 침식을 잊으시기에 이르시고 性理諸書를 다시금 완미하셔서 희미한 말과 깊은 뜻을 풀어내시며 극히 通暢하고 史記에 실린 바와 같이 고금 문적과 제자백가서의 문서의 기이하고 은밀한 데를 다 넓게 詳考하시고, 老士宿儒와 신학才子라도 모르는 데를 와 문자오매 공이 물음에 따라 해석하시되 밝게 하여 비록 문자는 僻하여 세상이 드물게 아는 글이라도 외워 이르시되 한 자도 빠짐이 없으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감복하여 이르되 공의 천품이 虛名히야 일호도 외물에 걸림이 없어 그러하다 하더라.

공이 젊어서부터 場中에 출입하되 일찍 서책을 가지고 들지 아니하더니 李判書 箕翊이 선비 때에 책을 가지고 장차 장중에 들어가더니 길에서 만나 기꺼워 가로되 공으로 더불어 한 가지로 同接하면 책하여 무엇하리오 하고 집으로 도로 보내더라.

이처럼 그의 학문은 당대의 쟁쟁한 문인들 사이에서도 최고로 평가되었고, 그의 학문하는 자세 또한 동점의 모범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친구였던 박세당의 논척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박세당과 본래 막역한 친구지간이었으나, 그가 송시열과 대립하자 주자학을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과감히 절교하는 등 그 성격이 송강과 매우 흡사하였다는 이야기들이 전한다. 세간에서는 이때의 사건을 정철과 이이의 일, 즉 삼찬논척(三竄論斥)에 비유하면서 과연 그 조상에 그 자손이라는 말까지 전한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

정식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다. 임오년(1702년)에 진사에 나아갔다는 기록이 있으나, 정작 자신은 과거에 큰 뜻을 품지 않은 듯하다. “우리 아히 즉금 직상의 출입하고 내 쏘흔 농공은명을 맞즈와시니 부즈의 은총과 영경이 임의 극던흐니 엇디 다시 과거하여 영화로오물 비라

리오.”라고 한 데서도 익히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무신년(1728, 영조 4)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당하여서는 의병을 모집할 정도로 절의가 강한 인물이었다. 다음 글을 보자.

무신년 난을 당하여 공이 가로되 우리는 世祿之臣이나 비록 도정에 있지 아니하나 도리는 마땅히 몸으로써 나라에 죽을지라 할이에 土主 朴公 수인으로 더불어 軍士를 군령하시어 진에 나아가고 또 돌아와 義兵을 이루려 하서 鄉中忠義 옛 선비로 더불어 뜻을 한 가지로 하여 士民을 결동하시니 원근이 감동하여 조츠는 이 많더라.

이로 보아 당시 무신난을 당하였을 때는 그가 용궁의 현감으로 재직할 때였으며, 현감으로써 군진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돌아와 따로 의병을 모은 듯하다. 이로써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임금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을 것이라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후 <축산별곡>을 지어 불러 사미인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여기에 더하여 『선조가사』에 실린 발문³⁾ 등을 분석해보면 『선조가사』의 행적과 정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축산별곡>의 내용적 특성을 짐작할 수도 있다. 우선 <축산별곡>은 현전하기까지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친 듯하다. <축산별곡>의 발문을 보면, “신묘년에 횡장과 별곡초를 일코 즈손 되온 ㅁ음이 듀야 창연 울흔 ㅁ음을 이기지 못흐더니 흐 상한이 횡냥의셔 칙을 어더다 ㅁ 넓는다 흐거늘 드리라 흐여 본즉 이 가스와 횡장 벗긴 칙 이라”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로 보아 <축산별곡>은 지어진 지 채 60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집안에 불어 닳친 불의의 사고로 유실되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발문은 임인년, 즉 1782년에 정식의 종중조손인 정익환이 지어 첨부한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81년이 지난 1863년에 후손 연(漣)이 쓴 발문에는 이 책의 분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3) 본고에서 인용하는 ‘발문’ 역시 진동혁의 앞 논문에 의함을 밝힌다.

내용이 나온다.

신묘년 가화 때에 용궁공이 지은 바 가사 초고 및 발문을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었는데, 후에 사랑방에서 언문책을 읽는 것을 인하여 들여와서 읽어보니 곧 축산별곡과 행장이었다. 그리하여 베껴 쓴 글의 끝에 이 말을 붙여 놓는다. 아, 어찌 괴이한 일이 아닌가! 지금부터 임인년은 83년 전이니 그동안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도 나의 조부님과 부모님의 手澤이 아직도 이 책에 남아 있다. 책을 奉覽함에 感涕함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부터는 刊本 謄本을 막론하고 삼가 남에게 빌려 주지 말고 높이 받들어 간수하여 공경히 완상해야 할 것이다.

이 글로 보아 <축산별곡> 및 「용궁공행장(1754)」은 1771년에 일어난 가화(家禍) 때 분실되었다가 우연한 계기로 되찾게 되었고, 정익환은 송강 정철의 다른 가사들과 함께 이 작품과 행장을 수록하여 『선조가사』로 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수하여 후손 연이 발문을 붙여 재간 혹은 재등한 책이 바로 진동혁이 입수한 현전 『선조가사』이다.

<축산별곡>은 정확하게는 1728년 초여름께 무신란(이인좌의 난)이 실패로 끝난 직후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장에 의하면 정식은 1725년(영조 1) 겨울에 축산으로 부임한다. 그러다가 1728년(영조 4)에 병을 얻어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보통 이 시기의 3년 간을 <축산별곡>이 지어진 시기로 유추한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사 1 부분의 ‘옛그제 섭현비부 어느 사이 삼 년인고’와 결사 부분의 ‘홍화(紅花)도 벌써 지고 녹엽(綠葉)이 성음(成陰)하니’라는 구절과 ‘춘강(春江)’, ‘두견화’ 등의 시구로 보아 정확하게는 1728년 초여름, 즉 고향에 돌아오기 직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작품의 결사에 보이는 ‘왕사(王事)도 양장(仰帳)하고 쇠병(衰病)이 침심하나’라는 구절도 이 시기를 미루어 짐작케 해준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계기가 임기 중 병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작품 속 ‘쇠병(衰病)’과 무관할 리 없는 것이다.

<축산별곡>은 넓은 측면에서 기행가사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행가사가 “가사 형식에 출발, 노정, 목적지, 귀로의 4단계를 내포한 시간적 공간적 과정에서 여행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자신의 여행 경험을 담아 문학화한 것”⁴⁾이라고 본다면, <축산별곡>은 이에 비교적 충실하게 들어맞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궁’이라는 곳에 부임한 이후 공무 중 틈을 내어 육로와 해로를 따라 여행하는 노정이 노래에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이 작품의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이동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현재의 지형적 특성상 고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작품을 기행가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공간 고증의 불확실성은 그가 임기 중 다녀갔던 곳마다 그곳에 대한 감상을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임기를 정리할 무렵 노래로 만들었을 가능성과도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작품 속에 보이는 ‘유산(遊山) 음주(飲酒)는 못할 것도 없겠지만 / 문속(問俗) 관풍(觀風)이야 아니 하고 어찌 하리.’라는 구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임기 중 부임지의 어디든 유산(遊山) 삼아 다녀가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자신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했던 의지가 더욱 강했던 까닭에, 정식의 <축산별곡>에 나타난 이 구절은 그의 노정이 한 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에서 시간적 질서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개의 강호가사와 마찬가지로 ‘사시(四時)’라는 시간적 질서가 이 작품에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작품에는 사계를 치칭하는 문구들이 존재하는데, ‘춘강(春江), 녹엽(綠葉), 중추(中秋), 엄풍(嚴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점들을 연계해보면 이

4)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일지사, 1982), 11쪽.

작품은 기행가사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선조들의 유풍’ 그대로 강호가사의 성격에 더욱 합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요 노정, 즉 장소와 장소 사이의 이동이 주로 뱃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기행적 성격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작품에서 언급되는 장소마다 ‘매번’ 뱃길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⁵⁾ 오히려 정식은 ‘뱃길’에 내포된 ‘운행’의 의미를 ‘사시의 운행’으로 치환하여 기행의 노정에 강호가사의 유풍을 담으려 했을, 즉 고도의 시적 기교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축산별곡>은 본질적으로 기행가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행가사에는 그 여행의 목적 혹은 계기에 따라 흔히 ‘관유기행가사, 유배기행가사, 사행기행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기철⁶⁾은 여기에 ‘표류기행가사’를 더하여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들 기행가사의 유형 중에서도 특히 관유가사는 우리 기행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행가사의 유형에 대해서는 최강현⁷⁾의 연구가 매우 자세한 편인데, 이에 의하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축산별곡>은 대체로 관유가사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⁸⁾ 관유가사란 대개 “여행자가 나라 안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산천 경치나 명소 고적을 구경하러 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소재 또는 주제로 하여 지은 가사”⁹⁾이거나, “관료들이 자기 任地의 승경을 노래한 것으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성은에 감사하고 공무에 틈을 내어 자기 임지의 곳곳을 둘러보며 군주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감흥을 읊고 善政을 다짐하는

5) 이 점은 필자가 작품에 언급된 장소를 직접 답사한 이후 얻은 결과이다. 다시 말해 어떤 장소의 경우에는 현경으로부터 뱃길을 이용하지 않아도 가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6) 정기철,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도서출판 역락, 2001.

7) 최강현, 앞의 책.

8) 위의 최강현의 연구에서 그 대상으로 삼은 조선시대 기행가사 35편 중에 <축산별곡>은 속해 있지 않다. 물론 이 때는 <축산별곡>이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9) 최강현, 『觀遊歌辭小考』, 『홍대논총』 Vol.11(홍익대학교, 1979), 116쪽.

것이 주된 내용”¹⁰⁾을 이루는 가사를 말한다.

<축산별곡> 이전에 제작된 이러한 두 개념에 해당하는 작품들로는 <관서별곡>, <관동별곡>, <관동속별곡>, <출새곡>, <천풍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은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전라도 등이다. 관서, 관동, 관북, 호남이 모두 포괄되어 있으나, 유독 충청과 영남지역만 빠져 있다. 정식의 <축산별곡>은 이러한 지역적 결손을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이 관유가사의 전통을 영남에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확산은 작품 창작 행위나 그 결과물의 확대가 아닌 작품의 지역적, 공간적 확산을 의미한다.

또한 <축산별곡>은 노래의 도입 방식이 선조들의 강호은일형 유품을 답습하는 전통 작시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그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송순의 <면양정가> 서사 부분과 비교해 보자.

无等山 흔 활기 뵈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 / 멀니 세쳐와 霽月峯이 되여거늘
無邊 大野의 모습 짐작 호노라 / 일곱 구비 흠머 움쳐 므득므득 버러듯 듯
가운데 구비는 굵기 든 늘근 놓이 / 선증을 곳 췌야 머리를 안쳐시니
너르마희 우희 / 松竹을 해희고 亭子를 안쳐시니 / 구름 탄 청학이千里를 가
리라

<면양정가>

쇼중화 제일형이 하늘삼긴 형승일다 / 천특산 혼활기 희동으로 버더오니
농비산 빼친봉만 췌어드러 알픽섯다 / 그스이 느린물이 호복천 되얏공
뉴리를 고갓는듯 빅년을 다렛는듯 / 청상흔 죠흔기운 듀아의 뉴동흔다
<축산별곡>

위의 <축산별곡> 서사에서는 기행가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서사의 내용, 즉 여행의 출발 상황이나 출발 동기 혹은 여행의 동기 등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축산별곡>의 서사만 가지고서는 기행가사로 보

10)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집문당, 1982), 29쪽.

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강호를 대하는 <면양정가>의 시선 처리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¹¹⁾ 이런 점은 역으로 그 역시 송순을 포함한 선조들의 가사 작법을 계승하면서 꾸준하게 나름의 작시 행위를 지속해왔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진동혁의 지적대로, “송강의 유지를 잇고자 후손들이 가사를 지었을”¹²⁾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축산별곡>은 크게 총 다섯 부분의 내용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는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로 축산의 전반적인 지형, 특히 용비산과 호복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풍광에 대해 노래한다. 본사 1은 제11행에서 제21행까지로, 청원정에서 느낀 소회를 토로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자신이 부임하여 3년여 동안 공무를 수행한 축산 지방의 미풍양속에 대해 찬양조로 노래한다. 계속해서 본사 2부분은 제22행에서 제28행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특별한 곳에 대해 노래한다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특히 배를 통해 노룡연을 건너는 과정을 노래한다. 본사 3은 제29행에서 제39행까지로, 백석정과 영귀정이 노래의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본사 4는 제40행에서 제50행까지로, 수월루와 옥정연의 감상을 노래한다. 마지막으로 결사는 제51행에서 제56행까지이며, 여기에서는 사미인(思美人)의 심정을 읊음으로써 노래를 마무리한다.

요컨대 이 작품에 보이는 작자의 노정은 축산에 부임하면서 본 축산의 지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을 노래하는 서사를 시작으로 ‘(육로) 청원정 → (해로) 노룡연 → (육로) 백석정 → (해로) 영귀정 → (육로) 수월루와 옥정연’으로 이어지다가, 임금을 생각하는 ‘사미인(思美人)’으로 결사를 구성한다. 각각의 노정과 그에 따른 감흥은 다음 장에서 살펴도록 한다.

11)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

12) 진동혁, 앞의 논문, 104쪽.

3. <축산별곡>의 노정과 내용

축산은 지금의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일대를 말한다. 그곳에서 현감의 직임을 다하던 정식은 3년째에 이르러 축산 지역의 승경을 따라 여행을 시작한다. 작품에서는 우선 축산의 전체적인 형상에 대해 노래한다. 서사에 속하는 부분으로 제1행부터 제10행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소중화	제일형이	하늘삼긴	형승일다
천촉산	흔활기	히동으로	버더오니
룡비산	빼친봉만	뛰어드러	알픽섯다
그스이	느린물이	호복천	되얏공
유리틀	고갯논듯	백년을	다렸논듯
청상흔	조흔기운	듀야의	뉴동흔다
창님은	은영흐고	백스논	눈이로다
이도곤	조흔산천	쏘어디	잇단말고
인걸은	지령이라	제남의	명스하다
청스의	두신밧귀	내보매도	여러히라

소중화(小中華) 제일형(第一形)이 하늘 삼긴 형승(形勝)이다.
 천촉산(天竺山) 한 활기 해동(海東)으로 뻗어오니
 용비산(龍飛山) 뻗친 봉만(峰巒) 뛰어들어 앞에 섰다.
 그 사이 내린 물이 호복천(虎伏川) 되었으니
 유리(琉璃)를 꽃은 듯 백 년을 달리는 듯
 청상(清爽)한 좋은 기운 밤낮으로 흘러든다.
 긴 숲은 은영(隱映)하고 백사(白沙)는 눈이로다.
 이보다 좋은 산천 또 어디 있겠느냐.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제남(濟南)에 명사(名士) 많다.
 정사(政事)의 두신 밖에 내 봄에도 여러 해라

그 동안 정사에만 몰두하다가 관아를 벗어나 여행길에 오르니 문득 활연히 펼쳐진 축산이 그에게는 마치 ‘소중화(小中華)의 제일형승(第一勝地)’

이었던 모양이다. 눈앞에는 용비산(龍飛山)이 서 있고, 그 아래 굽이굽이 돌아가는 하얀 백사장과 파란 물길에 작자 자신도 모르게 청상한 기운의 생동과 유쾌한 마음의 질주를 꿈꾸게 하는 듯한 풍경을 노래한다. 그에게 있어 이런 풍경은 단지 승경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이 고장의 인걸을 배출하는 신령스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용비산은 현재의 비룡산(飛龍山)을 말하며, 해발 189미터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축산의 주산 노릇을 담당하였다. 이름 그대로 용이 나는 형국의 산세를 자랑하며, 천년고찰 장안사를 품에 안고 회룡포를 마주하여 우뚝 솟아있는 산이다. 그 아래 호복천(虎伏川)은 호랑이가 었드려 있는 듯한 형국이니, 용비산과 호복천은 그대로 짝이 된다. 짝 맞은 그 가운데 홀로 서 있었을 그에게 ‘이보다 좋은 산천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말 외에 그 어떤 형용의 언어도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서사의 시작 방식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송순의 <면양정가>와 닮아 있다.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떼쳐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로 시작되어,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진 듯 /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로 이어지는 <면양정가>의 서사를 이끌어내는 송순의 시선은 ‘우리러보고, 굽어보는’, 즉 ‘면앙(俛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러 산을 노래하고, 다시 굽어보며 물을 노래하는 시선 처리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축산별곡> 서사에 나타난 시선 처리 방식 역시 이와 유사하다. 용비산을 둘러 올려다보며 시작하는 시선이 이어 호복천에 내려와 닿고 있는 것이다. 관유형 기행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강호가도의 가풍을 비교적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은 본사 1에 해당하는 노정으로,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이다.

청원정	도라드러	읍호를	브라보니
청송	경절은	지금의	쵸영하다
충효도	ㄱ즐시고	널녀도	ㅎ도홀사

서하의	미속이오	추로의	유풍이라
쇠옹이	성은넙어	이삭희	패부하니
유풍을	빅양하라	교화를	도솔홀가
양성이	아니라도	진시는	양성하다
바람을	순히하니	소리를	썰니하라
엇그제	섭현비부	아낙스이	삼년이고
유산	음주는	못홀시	올키니와
문속	관풍이야	아니코	엇디하리

청원정 돌아들어 읍호(邑戶)를 바라보니
 청송(靑松)의 경절(勁節)은 지금도 빛나도다.
 충효(忠孝)도 가질시고 열녀(烈女)도 하도 할샤
 서하(西河)의 미속(美俗)이오 추로(鄒魯)의 유풍(遺風)이라.
 쇠옹(衰翁)이 성은(聖恩) 입어 이 땅에 패부(佩符)하니
 유풍(遺風)을 배양하여 교화를 도솔(導率)할까.
 양성이 아니라도 진시는 양성하다.
 바람을 순히 하니 소리를 빨리 하라.
 엇그제 섭현비부(葉縣飛鳧) 어느 사이 삼 년이고.
 유산(遊山) 음주(飲酒)는 못할 것도 없겠지만
 문속(問俗) 관풍(觀風)이야 아니 하고 어찌 하리.

그가 축산의 여정에서 처음 발길을 옮긴 곳은 청원정(淸遠亭)¹³⁾이었다. 청원정은 1354년(공민왕 3)에 국과 전원발(1288~미상)이 환국했을 때 원나라 원제에 조공을 감면케 한 공로로 축산부원군에 봉군되고 지금의 소천강 일대를 하사받아 창건한 정자라고 전한다. 청원정의 평면은 일자(一字)형으로 1칸 규모의 온돌방을 중심으로 양측에 마루방을 각각 1칸씩 두고 전면에 뒷마루를 설치한 모습이다.

이곳에서 그는 축산의 풍속을 몸소 느낀 듯하다. 공맹의 유풍까지 언급하며 충효의 마을, 열녀의 마을, 그래서 미풍과 양속이 도도히 흐르는 축산을 칭송하기에 여념이 없다. 빼어난 산천과 미풍양속이 공존하는 축산

13) 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9번지에 위치해 있다.

은 유학자이자 관리였던 그의 노래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 역시 어느 관리들처럼 하시라도 음주 유산할 수 있었겠으나, 풍속을 듣고 관찰하며 교화하는 일에 소홀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쇠옹(衰翁)이 성은(聖恩) 입어 이 땅에 패부(佩符)하니 / 유풍(遺風)을 배양하여 교화를 도솔(導率)할까’라는 구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늙고 병든 자신을 지방의 수령으로 보내주신 임금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용궁 현감으로 부임한 지 삼 년이 다 되어서야 유람을 시작한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하다.

다음은 본사 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22행에서 제31행까지이다.

춘강의	비를찍워	노룡연	내려가니
스변의	솔바람은	금곡을	화답하고
암간의	두견화는	녹과의	도요하니
어부의	긴그물을	상하의	가로치니
은닌이	발척하나	슈변의	소습췌니
한니부	밤의보고	두습유	겨울희는
이거동	견조오면	아노야	낮단말고
남녀의	비겨안자	빅석정	올라하니
사람은	어디가고	빈터만	나맛느니
청풍이	완연하여	노송의	머물렀나

춘강(春江)의 배를 띄워 노룡연 내려가니
 물가의 솔바람은 금곡(琴曲)을 화답하고
 바위틈의 두견화는 푸른 물결에 비추이네.
 어부의 긴 그물을 위아래로 가로 치니
 아름다운 은빛 잉어 물가에서 소습(所習)하네.
 한이부(韓吏部) 밤에 보고 두습유(杜拾遺) 겨울 희(戲)는
 이 거동 견주자면 어느 것이 낮겠느냐.
 남녀(藍輿)에 빗겨 앉아 백석정 올라보니
 사람은 어디 가고 빈 터만 남았는가.
 청풍(淸風)이 완연(宛然)하여 노송에 머물렀나.

청원정을 돌아 나와 배를 띄워 노룡연을 따라 이어지는 뱃길 여행의 소회는 계절을 넘나든다. 한 구비 돌아칠 때마다 만나는 새로운 승경과 술밭, 백사장을 스친 바람이 물결소리와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한 편의 아름다운 곡조가 이곳에서의 뱃놀이가 갖는 흥취를 말해준다. 이러한 흥취가 ‘한이부 밤에 보고’의 등화가친과 ‘두습유의 겨울 회’, 즉 두보가 이백, 고적, 잠삼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던 때의 흥취보다 훨씬 낫다며 자찬한다.

물가에서 뛰어노는 은빛 잉어, 그리고 굽이굽이 늘어선 절벽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하얗게 빛나는 승경을 만들어 낸다. 두습유의 흥취를 넘어 설 만큼 그 절묘하고 아름다운 승경을 마주하는 언덕에 놓인 백석정(白石亭)에서 그가 노래한 풍경이다. 그가 축산을 노래할 당시에는 이 정자가 사라졌던 모양이다. 그래서 빈 터에 덩그러니 서 있는 노송만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눈부신 승경을 따라 올랐던 백석정 옛터에서 그는 다시 외로움을 느낀다. 이때 그가 느낀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히 고향 떠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남은 향수이었을까? 아니면 퇴도선생의 자취를 찾기 전 그를 흠모해마지 않았던 까닭에, 먼저 가고 없는 그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이었을까? 이런 외로움은 다음 단락의 첫머리에 ‘고주(孤舟)’라는 단어로 대변된다. 또한 그가 가진 외로움의 정체는 노래에서 언급한 ‘수조가(水調歌)’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본사 3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32행부터 제50행까지이다.

고주	소류호야	영귀정	느려안자
송님을	바라보니	퇴도선칭	스위로다
스정의	숙목호여	신위를	철빅호니
덕용을	볶음논듯	빅세예	흥감하다
슈스논	근원멀고	이락이	물결츠니
후혹이	예를보아	희동쥬즈	범바다라
홍화도	블서지고	녹엽이	성음호니

정즈의	날이거니	각회를	돌뒹업다
수월루	올라안자	옥정연	구버보니
가성은	청절하야	벽운의	올나가며
무수는	편천하야	녹수를	펼치는듯
양왕의	도흔일은	꿈의엇디	싱각던고
가신의	이낙스느	뉘라서	주신것고
중추	십오야의	수도가	을픈말이
천수를	즈음치니	심스도	일반이라
엄풍이	짜홀것고	밀설이	훗날닐제
명금각	김흔밤의	훅불을	밝게혀고
공주	ㄹ득부어	고은노래	드른말이
인간의	오마영은	이밖고	쫘이실가

고주(孤舟) 소류(遡流)하여 영귀정 내려 앉아
 송림(松林)을 바라보니 퇴도선생(退陶先生) 사우(祠宇)로다.
 사정(私情)에 숙목(肅穆)하여 신위를 첨배(瞻拜)하니
 덕용(德容)을 비옵는 듯 백세에 흥감(興感)하다.
 수사(洙泗)는 근원 멀고 이락(伊洛)이 물결 차니
 후학(後學)이 예를 보아 해동주자(海東朱子) 법(法) 바다라.
 홍화(紅花)도 벌써 지고 녹엽(綠葉)은 무성하여
 정자(亭子)에 내렸더니 객회(客懷)를 둘 데 없다.
 수월루 올라 앉아 옥정연을 굽어보니
 가성(歌聲)은 청절(淸絶)하여 벽운(碧雲)에 올라가며
 무수는 편천하여 녹수(綠水)를 펼치는 듯
 양왕(襄王)의 좋은 일은 꿈에 어찌 생각던고.
 가신(佳辰)의 이 좋은 일 뉘라서 주셨는가.
 중추(中秋) 십오야의 수조가(水調歌) 읊은 말이
 오랜 세월 사이에서 심사(心事)도 일반이라.
 매운 바람 땅을 걷고 폭설이 훗날릴 제
 명금각 깊은 밤에 훅불을 밝게 켜고
 빈 술잔 가득 부어 고은 노래 들은 말이
 인간의 오마영(五馬榮)은 이 밖에 또 있을까.

여기에서 그는 영귀정(詠歸亭)과 수월루(水月樓)를 노래한다. 영귀정은

서애 유성룡(1542~1607)의 외할아버지인 송은 김광수(1468~1563) 선생이 연산군 때 관직을 버리고 은둔생활을 하며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세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00년경으로 추정한다. 이 정자는 미천강변의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정식은 여기에서 퇴계 이황을 생각한다. 자신의 학문과 사상의 토대요, 삶의 근원이라고까지 할 퇴계의 사우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 자신이 퇴계가 만들어 놓은 학문의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듯한 상념에 젖는다. 목민관으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학문적 삶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 그는 다시 수월루에 오른다. 수월루는 본디 용궁 동헌 북쪽의 객사터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구읍 향석초등학교 자리가 동헌이었는데, 현재 동헌은커녕 학교마저 폐교되고 동헌 터 북쪽의 객사 터도, 객사 터 동쪽에 있었다는 수월루도 자취를 찾을 길은 없다. 조선 초기의 문장가 서거정은 동헌 수월루에 올라 “몸도 한가롭지 못한데, 하물며 마음 일쏘냐. 양 볼에 수염은 문부 사이에서 다 희어지네. 청산에 돌아가지 못함을 부질없이 말하랴. 남쪽에 오니 청산 아닌 곳이 없다” 했고, 김수온은 “맑은 때 일 없고 몸도 한가로우니, 태수는 伯仲 사이에서 서로 즐기네. 백 잔 술 실컷 마시고, 누 위에 누워 주렴 걷으니, 남북이 모두 푸른 산일세.”라고 수월루를 노래했다고 한다.¹⁴⁾

그런 수월루에 올라 앉아 떠올린 수조가는 원래 『辭源』에 의하면 슬픈 노래인데, 여기서는 임금과 이별한 처지의 슬픔을 대변하는 노래가 된다. 즉, 소동파의 <水調歌頭>를 염두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동파는 “붉은 누각 돌아 나와 비단창문 스며들어 잠 못 드는 사람 비추네. 아무런 원한도 없을텐데 무슨 일로 이별에는 더욱 동글기만 하는가? 사람에게 는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이 있으니 달에게도 어둠과 밝음, 차고 이지러짐이 있겠지. 이는 예로부터 온전히 다하기 어려우니 다만 원컨대 그대

14) 신정일, 『대동여지도로 사라진 옛고을을 가다』(황금나침반, 2006), 217쪽.

오래도록 살아 천리 먼 곳에서도 저 고운 달을 함께 누렸으면.”¹⁵⁾이라고 노래하며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토로한 바 있다.

영귀정 앞 퇴도선생(退陶先生)의 사우에서 주자학과 이퇴계를 찬송했던 그는, 수월루에 올라서는 임금의 덕을 칭송한다. 비길 데 없는 이 강호가도의 흥취를 안겨 주신 주군에 대해 노래로써나마 보답하리라는 마음가짐의 발로이다. 그가 가진 외로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미인’과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처럼 세간에서 그의 노래에 송강 정철의 유풍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에 이르러 하는 말임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 글은 행장에 기술된 내용이다.

용궁 계신 때에 스스로 가사를 지으시니 이름을 축산별곡이라 하여 임금 생각하고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하셔 산천풍물과 전인유적을 읊으니 운우정절하여 그 고을 선비와 백성이 노래 부르고 원근에 전하니 사람들이 이르되 문청공 가사 유풍이 있다 하더라.

본사 3인 이 부분에서는 또한 송강의 삼찬논척에 비유되던 그의 성품을 엿볼 수도 있다. 그가 평소 흠모와 존송을 마지않던 이는 퇴계 이황이었다. 해동의 주자로 칭송받으며 당대 주자학의 거두로 평가받던 퇴계는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바다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였기에, 절친한 친구였던 박세당(1629~1703)마저도 논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의 친구 박세당을 좋아하다 절교함에 이르니 공이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시니 옛적에 송강 상공이 율곡을 위하여 三窟을 논척하시니 그때 풍채 지금까지 늠름하니 이제 또 동지와 더불어 소를 울려 경서를 울려 더러움을 배척하고 儒賢 謀陷을 伸辯하여 능히 賢祖의 유풍을 이으시니 사람이 다 이르되 이런 조상이 있는고로 이런 자손이 있다고 하더라.

박세당은 소론계열로서 노론계의 송시열과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

15) 轉朱閣/低綺戶 / 照無眠 / 不應有恨 / 何事長向別時圓 / 人有悲歡離合 / 月有陰晴圓缺 / 此事古難全 / 但願人長久 / 千里共嬋娟.

립관계에 있었다. 특히 당시 정치상의 주요 사안이었던 대청(對淸) 문제에서 온건론자로 간주되어 송시열을 비롯한 강경론자들로부터 ‘오사(五邪)’ 가운데 한 명이라고 지탄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702년(숙종 28) 이경석의 비문을 지은 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 비문에는 송시열의 인품이 이경석의 인품보다 못하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노론계를 자극하여 거센 반발을 일으켜 결국 김창협·김창흡 형제를 위시한 김진옥·정호 등과 성균관 유생 홍계적 등 180여 명의 상소로 삭탈관직 당하고 전라도 옥과로 유배되었다. 이탄·이익명·이인엽 등 박세당의 문인들의 소청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석천동으로 돌아왔으나 귀환한 지 3개월 만에 죽었다. 이때의 일에 대해 <용궁공행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미년에 박세당이 적휴의 의론을 답습하여 논어 맹자와 중용 대학의 주자주를 많이 고쳐 이름을 사변록이라 하여 그 문도를 가르치고 또 백현이 상공비문을 지어 우암을 욕하되 난정소인에 비겨 그 말이 극히 폐악하니 공이 태학당의 홍공 적과 모든 거제하는 제생으로 더불어 상소하여 변론하고 배척하되 세당의 고친 주설과 비문을 수화에 던져 그 근본을 없이 하여 경서를 훼방하고 현인의 모함죄를 법으로 다스려 세상으로 하여금 주자의 말씀을 감히 훼방치 못하고 송시열의 착함을 감히 모함치 못하게 함을 청하시되 말씀이懇惻하고 밝게 하였더니 臺啓 일어나 박세당을 削出하고 벼슬과 녹을 없도록 하니 이 다 공의 평일 의론이 峻截함을 알리라.

위는 주자학에 대한 그의 외경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세당이 평소 절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적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에 대해 욕하였다는 이유로,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송시열의 인품이 이경석의 인품보다 낮다고 평가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망설임 없이 상소하여 죄로 다스리고자 했던 그의 강직한 성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성품은 결국 ‘해동주자의 법 바다’에서 노닐며, 후학의 예를 다하고자 한다면 그의 노래에도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결사 부분이다.

스미인	흔곡도의	단침이	격절하다
나라히	허신하야	즈목을	받조오니
삼부를	못밋츠나	오고애	전일하다
왕스도	양장하고	쇠병이	침심하나
옥누의	들닌막읍	좁든밧	니줄쏘나
아희야	술흔잔 다시치고	특산별곡	불너스라

사미인(思美人) 한 곡조에 단침(丹枕)이 격절(激切)하다.
 나라에 헌신(獻身)하여 자목(字牧)을 받조오니
 삼부(三府)를 못 미치나 오고(五鼓)에 전일(全日)하다.
 왕사(王事)도 양장(仰帳)하고 쇠병(衰病)이 침심하나
 옥루에 달린 마음 잠든다고 잇을쏘나.
 아희야 술 한 잔 다시 치고 축산별곡 불러라.

그는 평소에 노래를 즐겨 하였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사미인’ 한 곡조는 다시금 입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 그리고 그 노래는 입을 생각하는 그 불디불은 마음을 더할 수 없이 격동하게 하는 듯 느껴진다. 높은 관직과 함께 임금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는 없지만, 지방 목민관로서의 소임이나마 다하는 것으로도 하루가 모자를 지경이며, 또한 그 지경을 기꺼워하는 심사가 엿보인다. 비록 쇠병이 도져 몸과 마음이 가라앉았다고는 해도 임금께서 주신 소임을 잊지 않기에, 그래서 더욱 임금을 생각할 수 있기에 기꺼이 <축산별곡> 한 곡조를 부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부른 노래 한 곡조는 임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을 것이다.

4. <축산별곡>의 문학사적 의미

본고의 논의를 통해 필자가 애초에 의도했던 영호남 지역의 교류사적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호남 출신으로 영남에서 벼슬하며, 가사를 지었다는 점만으로는 교류사적 측면에서 어떤 특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다만 몇 개의 관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미를 도출해 볼 수는 있다.

먼저 관유가사의 지역적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기존의 관유가사라면 대표적으로 <관서별곡>, <관동별곡>, <관동속별곡>, <출새곡>, <천풍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은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전라도 등이다. 자세히 보면 관서, 관동, 관북, 호남이 모두 포괄되어 있으나, 유독 충청과 영남지역만 빠져 있다. 이러한 지역적 결손을 정식의 <축산별곡>이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이 관유가사의 전통을 영남에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확산은 다분히 지역적, 공간적 배경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품의 양적 확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는 전기 기행가사에서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권섭(1671~1759)이 노래한 <영삼별곡>과의 비교에서 드러날 수 있다. 권섭은 정식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식의 <축산별곡>이 1728년, 권섭의 <영삼별곡>은 1704년에 제작되었으며, 이로 보면 <영삼별곡>이 <축산별곡>에 앞서 약 24년 먼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유람가사로 평가받는 <영삼별곡>이 관유가사라고 볼 수 있는 <축산별곡>과 그 창작의 계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로 탐색하고자 했던 점은 <축산별곡>이라는 특정 작품의 창작 계기보다는 그 작품이 지닌 지역의 문화사적 가치였다. 즉, 작품에 나타난 영남이라는 지역 혹은 공간으로서의 작품 배경에 집중하여 <축산별곡>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까닭에 유람가사나 관유가사의 차이보다는 두 작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행가사라는 본질적인 공통점에 더 주목하였던 것이다.

권섭의 <영삼별곡>은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행가사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탐문의 형식과 방법에서 결정적인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영삼별곡>에 나타난 탐문 방식의 특징은 “대상지역의 기행에서 그때그때 탐문을 가능케 하는 인물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실경적 인물의 다양한 활용은 결국, 기행의 여정을 좇아가며 대상 지역을 감상하는 서술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드러나고 있음은 분명하나 자의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끊임없이 나타내려는 의욕 또한 강한 편임을 내비치는 중요한 지점”¹⁶⁾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다음 글은 이러한 평을 대표하는 진술이다.

<영삼별곡>이 당시에 널리 불린 작품임을 알려주고 있는 이 한시¹⁷⁾는, ‘관동후곡’이라는 표현을 통해 <영삼별곡>이 ‘<관동별곡>을 이은, 새로운 작품’이라는 의미에서의 인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을 통해 송강 당대인 16세기에서 18세기 권섭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2세기 동안은 한 작품의 성쇠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그래서 16세기의 작품인 <관동별곡>은 그저 명색으로 남고 실제적인 향수는 <영삼별곡>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임을 알려주어 <영삼별곡>의 가치를 확인해주는데-, 역으로 크고 작은 변모를 겪고 있는 기행가사의 장르에서 여전히 확인되는 <관동별곡>의 전범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한다.¹⁸⁾

결국 <관동별곡>이 지닌 기행가사로서의 특성을 지속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삼별곡>이 그 뒤를 잇는다는 진술이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는 점, 즉 탐문의 방식-인물의 설정과 활용의 방식-에서 차별성을 갖기에 전후기 기행가사의 변모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축산별곡>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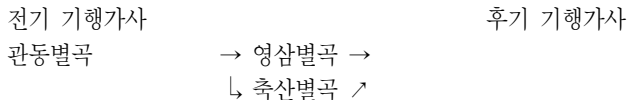
16) 최규수, 「<영삼별곡>에 나타난 탐문의 형상화와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204쪽.

17) 天高海闊竹西樓 十日笙歌雙白頭 女兒祇今新樂府 關東後曲播風流(一源 李乘淵, <山人有關東後曲>). 최규수 위의 논문, 206쪽. 재인용.

18) 김기영, 『금강산 기행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최규수, 위의 논문, 206쪽. 재인용.

<축산별곡>이 기행가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래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왕명에 의한 부임이 여행의 동기인 점은 확실한 까닭에 관유형 기행가사임도 분명하다. 앞서 살펴 본 평상시 정식의 성품과 이러한 여행의 동기로 보아 군주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감흥이 작품 내부에 혼재한다는 점 또한 자명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역대 기행가사, 특히 관유형 기행가사의 성격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선조인 송강 정철의 연주충신가사 제작의 가풍(歌風) 또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축산별곡>에서는 후기 기행가사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해지는 탐문의 방식이나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그보다 20여 년 앞서 지어진 권섭의 <영삼별곡>에서도 보이는 기행가사의 특징적인 진술 형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오히려 선대의 유풍을 착실히 따르면서, 기행가사이면서도 기행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색이 중심이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이 가진 문학사적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대의 가풍을 답습하는 듯하면서도 탐문의 과정과 결과에는 큰 비중이 없다는 점, 전반적인 내용이 자신의 사유와 학문에 대한 흥미, 그리고 충신연주지사인 점 등은 결국 <축산별곡> 역시 기행가사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변모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행가사이면서도 탐문보다는 작자의 사색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삼별곡>과는 다른 면모에서의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하겠다.



[표 1] 기행가사의 변모 과정과 <축산별곡>의 위치

위의 표는 <영삼별곡>이 <관동별곡>의 지속성 상에 놓여 있으면서, 탐문의 형식과 방식의 측면에서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 과정을 이끈 작품으로 평가된다면, <축산별곡>은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그 변모 과정에 하나의 내용을 추가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축산별곡>이 기행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규정하는 ‘탐문’보다는 오히려 내용적 측면에서 전대의 가사를 충실히 계승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축산별곡>은 <영삼별곡>과 더불어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를 완성시키는 과도기적 작품으로서의 문학사적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두 개의 큰 차이 혹은 변모 양상이 거의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행가사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다면 <축산별곡>이 가진 지역문화사적 가치 또한 더불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본고는 문학사적 측면에서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정식의 <축산별곡>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조가사』에 실린 정식의 행장과 작품 관련 발문들, 그리고 <축산별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것이 갖는 문화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식의 <축산별곡>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관유가사의 지역적 확대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관유가사에서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은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전라도 등이었다. 즉, 관서, 관동, 관북, 호남이 모두 포괄되어 있으나, 유독 충청과 영남지역만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적 결손을 정식의 <축산별곡>이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이 관유가사의 지역적 전통을 영남에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기 기행가사에서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 과정에서 그 한 특성을 담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권섭의 <영삼별곡>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축산별곡>이 기행가사의 형식적 특징, 특히 <영삼별곡>의 문학사적 특징을 규정하는 ‘탐문’보다는 오히려 내용적 측면에서 전대의 가사를 충실히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축산별곡>은 <영삼별곡>과 더불어 후기 기행가사로의 변모를 완성시키는 과도기적 작품으로서의 문학사적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이러한 두 개의 큰 차이 혹은 변모 양상이 거의 같은 지역에서의 기행가사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다면 <축산별곡>이 가진 지역문화사적 가치 또한 더불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기영, 『금강산 기행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 신정일, 『대동여지도로 사라진 옛고을을 가다』, 황금나침반, 2006, 217쪽.
- 정기철,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도서출판 역락, 2001.
- 정재호,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29쪽.
- 진동혁,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일지사, 1982, 11쪽.
- , 「觀遊歌辭小考」, 『홍대논총』 Vol.11, 홍익대학교, 1979, 116쪽.
- 최규수, 「<영삼별곡>에 나타난 탐문의 형상화와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8집, 열상고전연구회, 2003, 204쪽.

투고일 : 2010년 6월 30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Jeong-Sik's <Chooksanbyeolgok> and the meaning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Jo, Tae-seong

<Chooksanbyeolgok> was written by Jeong-sik at the Yonggoong in 1728. This study tri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work from the cultural point of view. For this, I examined into the Jeong-sik's lifetime, the content and form of his work and etc.

First, I found the meaning of the regional expansion in Gwanyugasa. In other words, <Chooksanbyeolgok> filled the regional loss in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Second, I discovered the fact that <Chooksanbyeolgok> performed an important role in a process of transfiguration of the Gasa. In comparison with the Gweon-seop's work, this is a dominant characteristic. Gweon-seop's <Yeongsambyeolgok> was concentrated on the 'obtaining information', while <Chooksanbyeolgok> focus on the its content.

Key words : Jeong-Sik, Gwanyugasa, <Chooksanbyeolgok>, <Yeongsambyeolgok>